



원주지회

<14기 - 제15호>

함께하는 길

md.kmwu.kr

산별 전환 정착!!
안정적 노동조합!!
조합원 권익향상!!

■ 발행일: 2026년 10월 13일 ■ 전화: (033)730-7871 ■ 발행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

만도지부 90% · 원주지회 94.9%

압도적인 찬성, 조합원의 의지를 확인했다.

만도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0%, 원주지회는 94.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13차례의 교섭에도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은 사측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노동조합에 더 강력하게 투쟁하라는 조합원들의 분명한 명령이다.

쟁대위 체제 전환, 이제는 행동으로!

만도지부는 10월 8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원주지회도 쟁대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쟁대위 결정에 따라 임·단협 타결 시까지 잔업·특근, 조출, 중식 작업을 전면 차단하고, 확대간부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와 투쟁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번 투쟁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다. 전 조합원이 쟁대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교섭의 힘은 더욱 커진다. 조합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회사의 성장만큼 직원들의 삶과 처우도 나아지고 있는가?

HL만도 2021 ~ 2025년 연결기준 매출 · 영업이익의 증가율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6조 1,474억→9조 4,548억	2,323억→3,571억
+53.8%(증가)	+53.7%(증가)

2026년 1, 2분기 매출액	2026년 1, 2분기 영업이익
약 4조 8,070억	약 2,006억

회사의 실적은 성장, 하지만 직원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실질적인 교섭안으로 답해야 한다.

“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타 노조 가입 강요” 법적 대응 한다.

조합 탈퇴 회유와 무노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 온 옆자리 동지들을 생각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끝까지 함께 갑시다. 조합원의 자주적인 노조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원주지회 94.9%의 뜻, 하나 된 단결로 임·단협 승리하자!

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지 맙시다! 조합 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 온 후배 동지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의 특근 통제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마지막까지 쟁대위 지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순간의 작은 욕심과 개인의 이탈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보다 우리 모두를 먼저 생각합니다!

94.9%의 뜻을 행동으로! 회유에 맞서고, 이탈 없이 하나로!
작지만 강한 노동조합, 2026년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

왜 HL만도를 떠나는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영, 이제는 바뀌야 한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이직·퇴직률 자료를 보면 **HL만도는 2024년 17.4%**로 나타났다. 제시된 자료에서 현대모비스 6.3%, 현대자동차 4.9%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가?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직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은 아닌지 회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회사가 직원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합리적인 대우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면, 직원들도 자부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함께할 것이다.

2024년 기준 자동차·부품업체 이·퇴직률 현황				
기업명	2년새 증감	이직 및 퇴직률		
		2024년	2023년	2022년
현대자동차	-0.6%p	4.9%	5.4%	5.5%
기아	0.8%p	5.0%	4.0%	4.2%
한온시스템	-0.4%p	6.1%	6.8%	6.5%
현대모비스	-1.4%p	6.3%	5.5%	7.7%
세방전지	-3.0%p	7.0%	7.0%	10.0%
에스엘	3.9%p	8.8%	6.6%	4.9%
한국타이어엔텍놀로지	-4.4%p	9.3%	9.7%	13.7%
금호타이어	-2.2%p	12.4%	18.8%	14.6%
넥센타이어	2.1%p	15.4%	14.7%	13.3%
HL만도	-12.5%p	17.4%	16.1%	22.9%

2024년 이직·퇴직률 자료 기준

직원을 비용으로만 볼 것인가,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볼 것인가.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단다. 이제는 실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임금·복지 개선과 고용안정으로 답해야 한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경영에는 미래가 없다.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다!